

20년간 지적장애인 그려 온 화가 김근태 광주서 ‘장애인의 날’ 기념전

## “100m 화폭 가득 꽃같은 이들 있다”



을 맞아 17~23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들꽃처럼 별들처럼’을 주제로 전시회를 여는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100호 크기의 작품 77개를 이어붙인 100m 길이의 대작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김씨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완성을 목표로 준비해온 작품이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지적장애인들의 순수함이 자연, 전쟁, 분단 등의 문제를 치유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작품은 내년 상반기 완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 작품 속에서 지적장애인들은 음표로 형상화된다. 남도의 사계절에 담긴 자연부터 모든 이야기들이 잉엄한 오케스트라 악보로 표현되는 것이다.

김씨와 지적장애인들과의 인연은 지난 1994년 시작됐다. 오래전 한쪽 눈이 실명하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가지게 된 김씨가 목포 앞 바다에 있는 작은 섬 고하도의 고생재 활원에서 150여 명의 지적장애인들



을 만나면서부터다. 그는 우연히 그 곳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고, 그러면서 점차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게 됐다.

김씨는 “그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다”며 “그 아이들을 그림에 가장 편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광주 살레시오고와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목포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15차례의 개인전을 비롯해 80여 차례의 단체전에 참여

했다.

광주시와 김근태 작가 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 개막식은 1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김씨의 고고 선배로 후원회장을 맡은 정동재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지자체 장관이 인도는 한국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 회장인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참석한다. 김씨는 이어 6월 11~21일 서울 한국 미술센터에서 ‘2014한국미술상 수상 기념전’을 갖는다. 문의 062-226-8056.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지난 20년간 지적장애인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화폭에 담아온 화가 김근태씨가 광주에서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김씨가 내년 ‘2015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초대전에 앞서 광주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오는 20일 ‘제34회 장애인의 날’

보이스 피싱 막은 여수 여천농협 선원지점 홍은주 과장

## “침착한 대응이 피싱 사기 막아요”



“불안에 떨던 할머니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협직원들과 합심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한 뻔한 할머니를 보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설득, 피해를 막은 농협 여직원의 사연이 화제다.

여수 여천농협(조합장 배상근) 선원지점 홍은주(여·42)과장은 최근 비 오듯 땀을 흘리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할머니를 은행창구에서 처음 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홍 과장은 다급한 목소리로 통장에 있는 돈 전부를 인출해서 송금해 달라고 하는 할머니를 보며 ‘보이스 피싱 사기’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급하다고 수차례 재촉했지만 그녀는 계좌내역 확인을 위해 적은 계좌번호가 다르다며 한참 동안 시간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를 협

시키며 협박을 당하고 있는지 물었고, 할머니는 “아들을 납치한 유괴범이 30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홍 과장은 곧바로 현직 경찰관인 친오빠에게 보이스 피싱 사례에 대한 자문을 구한 뒤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들이 무사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나서야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보이스피싱을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여수 시장과 여수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홍 과장은 “갑작스런 상황에서 침착한 대응 하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보이스 피싱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히 웃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백혈병·소아암 환아 위한 헌혈 행사

효성 임직원 7년간 5000여명 동참

효성은 15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서울 마포 본사에서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환자를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지난 2008년부터 7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행사는 본사뿐만 아니라 융산과 구미, 청원 등 주요 지방사업장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본사 및 전국 사업장에서 7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으며 7년간 헌혈에 동참한 효성 임직원만 5000여명에 이른다.

행사를 통해 모인 혈액은 임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서와 함께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되며 수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업종기자 exian@

### 금속공예사 정선수씨 첫 시집 ‘삶이 서툰 사람’ 펴내

“나이 철심이 되고 보니 지나온 날에 대한 후회가 적지 않습니다. 깊은 시절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미련이 들거든요.”

금속공예사이자 금속과 교사 출신 정선수(70) 씨가 ‘삶이 서툰 사람’(도서출판 한림)을 펴냈다. 오랫동안 고등학교에서 금속 과정 담당 교사로 재직하며 기능인 양성에 매진해왔던 그는 지난 2005년 ‘문화춘추’와 ‘자유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첫 시집 ‘삶이 서툰 사람’에는 모두 98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문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사물을 소재로 쓴 시는 자유로우면서도 활기가 넘친다. 금속을 전공한 공예사답게 철제 관련 문화재를 다룬 시에선 전문가적인 식격과 개성이 느껴진다.

“문화재를 볼 때마다 머릿속에 주물을

녹이고 틀을 만드는 과정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를 들여다보면 어느새 시상이 떠오르곤 하죠.”

그는 시를 쓰는 틈틈이 문화해설사로도 활동한다. 또한 전공을 살려 금속공예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하기도 한다.

시집 발문은 쓴 손글은 시인은 “일상적 삶의 정서를 마음속에 환기시켜 구체화해내는 솜씨가 만만치 않다”며 의미를 부여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故 오순희씨 모교에 장학금 3000만원

지난 14일 광주여자고등학교(교장 임종원) 교장실에 걸은 색 종필모를 쓴 남성이 담담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이날 광주여고 총동문회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은 오준식(79)씨는 누님을 대신해 참석한 자리에서 남다른 감회에 젖었다. 그는 지난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한 셋째 누나 오순희 씨를 대신해 광주여고에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하고, 이날 유가족을 대표해서 감사패를 받았다.

오씨는 “누님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후배들이 없도록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고자 했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문성고 송상혁군, 초록우산에 후원금

청소년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문성고등학교(교장 김홍국) 3학년 송상혁(19·기운데)군이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조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는 15일 문성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초록우산재단의 ‘1318 초록우산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송군이 최근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5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송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보고 일기를 쓰며 글짓기의 즐거움을 알게 됐는데 그로 인해 얻은 상금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

### 광주여대 특수교육과, 설리번 선서식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초등특수교육과와 중등특수교육과는 최근 대학 국제회의장에서 제6회 설리번 선서식을 거행했다.

/광주여대 제공

### 사랑의 열매-한페이시스 교통카드 보급 협약



사랑의 열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와 한페이시스(대표 한상국)는 15일 광주은행 본점 8층에서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교통카드 보급 협약식을 열었다.

/사랑의 열매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화족

▲김이중(세종장 대표)·김정숙씨 차남 선교군 박영서·이정란씨 딸 윤정양=20일(일) 오전 11시 50분 광주 아름다운컨벤션 1층 사넬홀.

▲김상진·이숙희씨 장남·윤정균 서영진(전남복지재단 대표)·김영란씨 막내 딸 윤진양=19일(토) 오전 11시 광주 ST워커힐컨벤션 3층 베리골드홀.

▲김원수·김정란씨 장남 윤웅근 구경숙씨 차녀 노나리나=19일(토) 오후 2시 광주 아름다운컨벤션 1층 티파니홀.

▲정갑룡(우룡건설·세운건설 대표)·오향옥씨 장남 철우군 정현호·김화숙씨 막내 유진양=19일(토) 오후 2시 광주 리蹦웨딩홀 2층 더 모던홀.

#### 동창회

062-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 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사랑애돌봄사업단 사회전체 이익을 위한 공익형 사업으로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 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신간강당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여자고등학교(교장 김홍국) 3학년 송상혁(19·기운데)군이 아동학대피해아동돕기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하고, 이날 유가족을 대표해서 감사패를 받았다.

▲광주여자고등학교(교장 김홍국) 3학년 송상혁(19·기운데)군이 아동학대피해아동돕기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하고, 이날 유가족을 대표해서 감사패를 받았다.

▲광주여자고등학교(교장 김홍국) 3학년 송상혁(19·기운데)군이 아동학대피해아동돕기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하고, 이날 유가족을 대표해서 감사패를 받았다.

▲광주여자고등학교(교장 김홍국) 3학년 송상혁(19·기운데)군이 아동학대피해아동돕기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하고, 이날 유가족을 대표해서 감사패를 받았다.

▲광주여자고등학교(교장 김홍국) 3학년 송상혁(19·기운데)군이 아동학대피해아동돕기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하고, 이날 유가족을 대표해서 감사패를 받았다.

▲광주여자고등학교(교장 김홍국) 3학년 송상혁(19·기운데)군이 아동학대피해아동돕기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하고, 이날 유가족을 대표해서 감사패를 받았다.

▲광주여자고등학교(교장 김홍국) 3학년 송상혁(19·기운데)군이 아동학대피해아동돕기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하고, 이날 유가족을 대표해서 감사패를 받았다.

▲광주여자고등학교(교장 김홍국) 3학년 송상혁(19·기운데)군이 아동학대피해아동돕기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하고, 이날 유가족을 대표해서 감사패를 받았다.

▲광주여자고등학교(교장 김홍국) 3학년 송상혁(19·기운데)군이 아동학대피해아동돕기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하고, 이날 유가족을 대표해서 감사패를 받았다.

▲광주여자고등학교(교장 김홍국) 3학년 송상혁(19·기운데)군이 아동학대피해아동돕기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하고, 이날 유가족을 대표해서 감사패를 받았다.